

## 드넓게 양돈인들을 포용하는

# 나·주·지·부

“양돈산업에 약 1조6천억이란 많은 정부 자금이 투자 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WTO체제에 들어가면서 양돈농가가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 자금을 빌려주면서 시설투자를 부추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는 상관없이 사익을 위해 문어발 식으로 기업을 늘려왔던 몇 개인의 대기업들은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면서, 축산인들의 부채에 대해 정부는 냉정하다. 정부가 부추킨 일을 IMF로 경제가 잘못되자 정부는 모른 척하고 국민(축산인)에게 떠 안기려 하고 있다. 이번 연기 조치 또한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것도 아닌 유예하는 것조차도 선별한다는 것은 이를 배반적으로 보인다”

**전** 남 나주시부는 전라남도 지역의 대표적인 지부로써 중앙회와 함께 고락을 같이 해온 전통있는 지부이다. 83년에 설립된 나주시부는 초대 김옥현 지부장, 2대 전재명 지부장에 이어 현재 3대 노동환 지부장이 지부를 이끌어 가고 있다.

나주는 전남 중에서 가장 양돈이 활성화된 지역이며, 사육·출하 등 양돈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양돈을 크게하는 대농이 많으며, 나주에서 생산된 돼지의 70% 정도가 지역 소비외에 육가공 등을 통해 전남지역 밖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나주는 우수 종돈장과 단지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나주의 전체 돼지 사육두수는 20만두 정도로 매우 많은 두수가 나주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부의 회원은 39명이며, 회원들의 평균 사육두수는 1,000두~3,000두 규모로 크다.

▼노동환 나주 지부장(오른쪽)과 지부살림을 말하는 김선숙씨\*



### 천목위주로 자율적 지부 운영

지부는 한때 공동출하 사업, 사료·약품·기자재 공동구매 사업 등을 통해 많은 자금을 모으고 융성화 되었었으

“정부에서는 사회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바쁘지만 양돈산업의 가격조정 기능을 과감히 실천하여야 한다. 돈가가 낮을 때 정부가 수매를 해 준다면 수요·공급 조절이 되어 우리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배가되고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 냉장 보관고를 더 짓고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안심하고 축산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축산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양돈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다른 그것들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도 정부는 외면하고 있다”

노동환 지부장 ▶



나, 정부의 경영방침에 따라 영농법인과 양돈단지, 광주·전남 양돈조합 생기게 되자, 지부사업의 운용에 관해 이 단체들과 이익사업의 경쟁관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92년 10월 현 노동환 지부장이 취임하면서 경제사업 부분에서 제각기 영농법인이나 조합의 역할을 인정하고, 지부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양돈에 관한 정보 및 사양기술의 토론하는 모든 양돈인들을 포용하는 모임으로 운용되고 있다.

지부는 회원들에게 월례회 등을 통해 각종 양돈정보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농가들이 지부를 통해 농장의 문제점을 해결하였을 때 보람을 얻는다고 노동환 지부장은 이야기 한다. 하지만 구태여 양돈협회를 통해 정보를 얻지 않아도 얼마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양돈을 크게 하는 대농일수록 각 기관 세미나, 연구회 등에서 여러 가지 요청이 많아 시간적 제약으로 협회의 참석이 더욱 부진한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진정한 이 지역 양돈 발전을 위해서는 양돈기술의

노하우가 축적된 대규모 사육농가들이 지부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지부장은 힘주어 이야기한다.

### 축분 공동퇴비장 계획, 농장 종업원 확보

지부장은 현재 중앙회가 제 위치와 역량을 다 발휘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양돈 관계단체와 조직이 난립되어 있다고 말하고, 협회가 양돈인의 진정한 중심이 되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나주지부는 영농법인 등의 협업체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에게 사료 공동구매 등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축협과 함께 지역의 질병 방역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축산분뇨 처리를 광주·전남 양돈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3N 시스템(‘약취, 파리, 방류’ 3가지가 없어서 3N. ‘N’은 ‘Not’의 의미)에 기대를 걸고 회원들에게 추천하고 있으나, 이것이 잘 안 될 경우 이후에 공동퇴비장을 운용할 계획을 구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그날 그날의 지옥시세를 흑판에 비교해서 기록하고 있다.

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한다.

지부는 회원농가의 편의를 위해 믿을 수 있는 농장 종업원을 항시 확보하고 있으며, 회원농가에서 인력을 보충해야 할 경우 쉽게 좋은 사람을 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지부장은 요즘들어 협회 회원으로 축산을 전공한 젊은 양돈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 젊은 양돈인들이 향후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해 나가게 될 것이라 덧붙혔다.

현실적으로 협회의 활성화는 공동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주위의 지부들이 공동사업으로 오히려 반목과 부정적인 요인이 생겨 망설여진다 한다. '어떻게 하면 지부가 잘 운영 될 것인가'는 언제나 지부장의 고민이다.

### 농가 부채와 분뇨처리시설에 제도적 변경 필요해

현재의 사료값 인상과 돈가하락에 관해 노동환 지부장은 "현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돼지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는 않고, 양돈은 공업제품과 달리 개인 농장마다 돼지 생산에 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즉, 자가배합사료와 구입사료

이용 차이, 자가노동과 타가노동의 의존을 차이, 축사의 현대화 정도, 자기자본의 비율, 분뇨 처리방법 등에서 원가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농장마다 아직 원가하락요인이 남아 있을 것으로 봅니다. 농장에서는 이 부분을 정비하여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10~15%의 모돈 두수 감축은 현 상황에서 필요하게 느껴

집니다. 일본 경제도 점점 어려워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라며 양돈인들이 변화해야 함을 이야기 했다.

분뇨처리의 경우 배가 유명한 나주의 특성을 살려 이 지역은 경농과 더불어 액비로 뿌려주는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액비를 뿌릴 경우 ▲겨울철에 뿌려야 하며 ▲용도(과수, 채소 등 작물 종류에 따라)와 상황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하며 ▲완전발효를 시켜야 하는 점 등을 잘 지킨다면 이 이상 더 좋을 순 없으며, 이를 위해 우리 양돈농가는 경농농가를 찾아가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켜야 함을 덧붙혀 이야기 했다.

또한 "정부는 양돈발전을 위해 분뇨처리시설의 제도적 방법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축산농가의 특수성 즉, 자본 회전기간이 긴 점, 축사의 감가상각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시설자금을 공급하여야 합니다.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고, 이 같은 제도가 이루어 질 때 양돈인은 전문화되고 돼지 기르는 데만 주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라며 정부의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취재 : 조진현> **養豚**